

# 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와 그 현대적 활용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 상 우\*

- |                      |                     |
|----------------------|---------------------|
| I. 서론                | IV.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
| II. 반구대 암각화의 개괄      | 1. 반구대 암각화의 활용 현황   |
| III.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 | 2.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
| 1. 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      | 1) 디자인 활용           |
| 2.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   | 2) 스토리텔링을 통한 극예술 활용 |
|                      | V. 결론               |

## 국문초록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은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그를 위한 대중화·생활화 방안이 여러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인들의 문화에는 공통의 정신 구조 즉 문화원형이 있고, 그 문화원형은 신화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나아가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들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현대적 재창조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림에도 불

\* 문화예술콘텐츠학회 연구원 / bnlove21@daum.net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구하고 반구대암각화의 본질적 요소인 신화적 가치들이 배제된 채 ‘실용화’ 되고 있어 그 원형들이 부지불식간에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원형들은 ‘현대적 실용화’로 재창조되었지만, ‘왜’, ‘어떤 것’이 현대화·도시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유인하는지에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적 예술성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 형상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활용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한 민족의 정체성은 그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문화전통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반구대 암각화라는 세계 유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화는 이와 같은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그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제어

문화유산의 예술적 가치,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 I. 서론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적 자산이 인류 삶의 질을 결정하던 지난 세기와는 다르게 문화적 자산이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화는 민족혼이자 창조력이고 자유의 실현이며 창조의 산물이어서 문화적 가치가 경제발전을 좌우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인류의 삶이 담긴 문화의 유산이 산업화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유산이란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을 의미하고 “민족사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 온 유무형의 자산으로서 보호·관리되거나 계승·상속·발전시켜야 할 만한 잠재가치를 지닌 것으로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문화재,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sup>1)</sup> 이처럼 문화유산은 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실증적 근거여서 선진국일수록 자국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 콘텐츠 창출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의 복원 및 활용이 본질적으로 그 문화유산이 가지는 모습, 역사적 의의와 원형적·예술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성공을 위한 상업화를 뛰어 넘어 그 본질적 의의에 입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 창조가 이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각각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는 존재의 유일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는데 있어 질과 진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재가 지닌 본연의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등을 살려 관광,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속 가

---

1) <http://ko.wikipedia.org>

능한 문화유산 활용을 지향하는 것이다.”<sup>2)</sup>고 밝히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여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다. 때문에 문화콘텐츠가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sup>3)</sup>이라고 한다면, 문화콘텐츠로서 문화유산의 실용화 역시 문화의 원형에 담긴 본질적 요소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문화유산의 원형적·가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신화와 제의’라는 문화원형에 있음을 밝히고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또는 재창조가 이와 같은 원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그 몇 가지 생활문화콘텐츠<sup>4)</sup>로서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룰 문화유산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생태계의 정보를 담은 세계에 유래 없는 암각화로 우리 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에는 조형적 예술성뿐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의 생활모습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원형이지만 이것의 현대적 활용화는 대부분 ‘신화’와 ‘제의’에 바탕을 둔 원형적 가치보다 고고학적, 미술사적, 조형적 가치를 위주로 시도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구대 암각화의 콘텐츠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반구

---

2) 박소라,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파크형박물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환경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9쪽.

3)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8쪽.

4) 생활문화콘텐츠란 한 민족의 문화원형이 깃든 생활양식, 정신문화 등을 일상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콘텐츠화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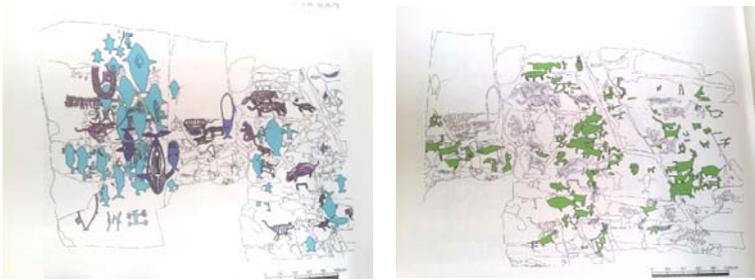
대 암각화를 콘텐츠화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정밀 축소 모형화하여 울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상품으로 제작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반구대 암각화 모양의 초콜릿이나 암각화의 등장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인형 등 암각화를 형상화하여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8년 5월 완공된 암각화 전시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노력들은 앞서 제기한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의 콘텐츠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형적 가치들을 파악한 후 그에 기반한 생활문화콘텐츠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은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조형적 시도와는 다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II. 반구대 암각화의 개괄



<그림1>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울산 암각화 박물관)



〈그림2〉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형상도(울산 암각화 박물관)

국보 2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그림1>은 울산의 태화강 상류의 대천담 상류에 위치한다. 반구대라는 명칭은 고려말 포은 정몽주의 아호인 반구(般龜)에서 붙여진 것으로 평상시에는 저수지에 잠겨 있어 볼 수 없으나 봄에 하천의 수원(水源)이 마를 때에는 모습을 나타낸다.

반구대 암각화의 성격이나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반구대 암벽을 성역이자 제당으로 보기도 하고,<sup>5)</sup> 제의와 교육의 터로 보기도 하며,<sup>6)</sup> 동물 수호신을 위한 곳의 장소로 보는가 하면,<sup>7)</sup> 재생과 풍요를 위한 봄의 정기적 의례장소로 이해하기도 한다.<sup>8)</sup> 라고 밝히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그림2>들을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인물과 동물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 동물이다. 특히 사슴, 호랑이, 멧돼지, 고래 등의 포유류를 많이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187점의 그림이 확인되고 불확실한 형상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여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sup>9)</sup>

5) 김원룡,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집, 한국고고학연구회, 1980, 22쪽.

6) 정동찬, 『살아있는 신화 바위그림』, 해안, 1988, 122~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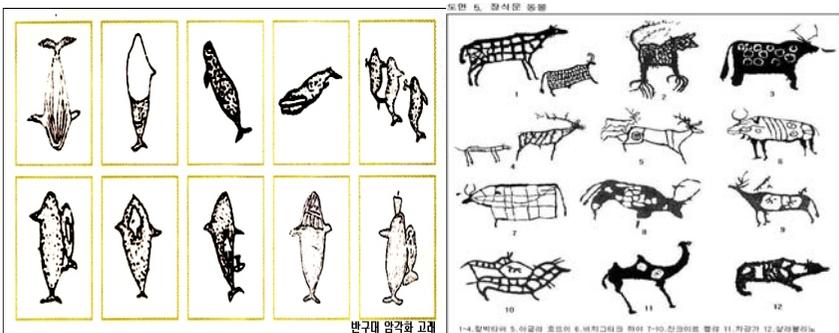
7) 김열규, 『한국문화사-그 형상과 해석』, 탐구당, 1983, 116~118쪽

8) 임장혁, 「대곡리 암벽조각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회』24집, 1991.

9) 황세권·문명대, 『반구대』, 동국대학교, 1984, 210~211쪽.



<그림3> 반구대 암각화의 인물상 실측도(글마루)



<그림4> 반구대 암각화의 바다동물과 육지동물 실측도(선사미술연구, 2007)

황수영·문명대는 반구대 암각화 속 인물상<그림3>을 A에서 F번까지 분류하고 직접 사냥하는 장면이거나 사냥 전후의 의식 때 춤을 추는 사냥의식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보았다.<sup>10)</sup> 반구대 암각화에서 대부분의 동물 그림들이 있는 부분을 주암면(主暗面)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모여 있는 3백 종류의 동

10) 황수영·문명대, 『반구대(울주 암벽조각)』, 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236~238쪽.

물 그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고래그림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밖에 인물상과 배, 사냥이나 수렵,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 등도 섞여 있다. 일반적으로 사납고 날렵한 육지동물은 선각으로 표현하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바다동물은 면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선각화는 바위면 전체에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되도록 겹치지 않게 새겨졌는데 선각화를 새긴 사람들이 앞에 새겨진 면각화를 되도록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한 흔적들로 보아 연속성이 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 III.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

#### 1. 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

문화유산은 자연에서 소재(재료)를 얻어 인간의 지혜와 솜씨, 미적 감수성과 다양한 기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인간의 손이 만들어 낸 가장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이며 지역과 국가의 문화DNA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생활미학이자 철학이고 과학이며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소재와 장르와 시공을 뛰어넘어 창의적 자양분인 문화를 비옥하게 하고, 창의의 흙씨인 예술을 널리 퍼뜨리며, 새로운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는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한편 문화유산의 원형은 크게 원형(元型;pattern)과 원형(原型;archetype)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먼저 패턴으로서 원형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양의 산출물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틀인 고유성, 정체성을 가진 본디 모양을 말한다. 이는 그것이 갖는 미술사적, 조형적 심미성을 표현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태

11) 임세권, 『한국의 암각화』, 대원사, 2000, 70쪽.

12) 김호석, 「공예란 무엇인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3.

(form)를 뜻한다. 반면 아키타입으로서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인간의 사유방식과 정서발전을 제어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 습관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심미취향을 좌우하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취향을 지배하고 있다.<sup>13)</sup> 때문에 문화유산이 갖는 원형적 가치를 말할 때는 아키타입으로서 원형적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아키타입으로서 원형적 가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모든 전통문화 속에, 또한 모든 현실문화 속에, 그리고 그 민족의 영혼 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sup>14)</sup> 따라서 유형적 실체로서 문화유산은 아키타입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고민할 때 우리는 아키타입으로서 원형적 가치를 밝히고 그를 토대로 활용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특정 민족의 특정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아키타입으로서 원형은 그 민족의 신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는 그 신화적 가치와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반구대 암각화의 원형적 가치

문화유산의 신화적 성격을 밝힌다는 것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신화에다 두고 신화적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시간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다. 이는 신화를 그 생성적 의미에 바탕을 두어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신화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기능이 반구대 암각화의 기능과 일치함을 밝히는 것이다. 문화유산에서 원형적 모티프는 인류의 보편적인 신화적 세계관의 투영이고 인간이 신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신화를 통해 삶을 의미화, 심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화의 표현은 상징적이다. 신화 시대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신적인

13) 선정규, 「중일 양국의 문화전통 비교」, 『세계의 문화전통과 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학회 50차 세미나, 2014, 1쪽.

14) 선정규, 위의 글, 2~3쪽.

것과 관련짓고 모든 것들에 신적인 상징성을 부여했다. 신화의 공간은 천지창조의 신성성이 부여되고 신적 질서가 내재되어있는 공간이다. 이같은 신화성은 시간이 흐른 오늘에도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하면서 표현의 상징성이 사실적으로 변화할 뿐 그 상징은 불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사 시대인들은 강가의 바위 절벽이나 강과 인접한 곳에 있는 바위를 선택하여 그림을 새겼다. 이 경우 암각화를 제작했던 주인공들이 물이나 돌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의 중요성은 선사유적이 강변이나 물길을 따라서 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라스코 동굴 속에는 우물의 흔적이 조사 보고 되었고, 선사시대의 메카로서 높이 45m의 석회암 단애 기슭의 바위 그늘에는 한여름의 건조기에만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한다.”<sup>15)</sup> ‘물’은 ‘치유이고 회생이고 재생’의 신화소이다. 이같은 물의 원형적·신화적 의미는 천지창조의 되풀이나 재생, 인식적 변화를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청전에서 인당수’, ‘광장에서 남지나해의 바닷물’ 등은 ‘재생’이라는 공통적 기능을 하고 있고, ‘심봉사의 개울’, ‘이명준의 월미도’는 인식적 변화를 통한 재탄생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물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의 원천이며 재생과 부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돌도 역시 불변성 항구성 등으로 인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에 물가에 있는 특별한 바위벽에 그림을 새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sup>16)</sup> 물 없이는 생명 그 자체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물은 세계 곳곳의 신화와 전설의 배경에서 원초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중국에는 우주의 알이 음과 양, 즉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두 힘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물이 생겨났다는 신화가 있다.<sup>17)</sup>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세례식, 석가탄신일의 법요식, 유두날 머리

15) 장석호, 「천지리 각석 실측조사보고서」, 울산광역시, 2003, 25쪽.

16) 박정근외, 『돌의 미를 찾아서』, 2000, 19쪽.

17) 알의 가벼운 부분은 위로 솟아 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부분은 아래로 내려와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알 속에 판구라는 거인이 나와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났다고 한다. 거인이 죽은 뒤 그 몸이 부서지면서 산과 강, 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감기, 정화수 등 종교적 또는 민속적으로 관습화된 형태로도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물’의 신화소가 표현은 변화했으나 상징은 불변함을 실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반구대 암각화는 물의 재생과 부활, 바위의 신성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사시대 제의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암각화가 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수렵 생활을 관련지어 볼 때, 암각화의 많은 부분이 동물의 풍요로운 번식을 기원하는 내용이며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고, 또 죽은 동물의 영혼을 불러 위로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은 물의 재생적 상징성과 합치되는 부분이다.

한편 신화는 그 서사구조상 천지창조 신화와 입사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적 주인공이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가 세계의 질서와 대지가 되어 천지창조를 되풀이하는 것,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무형의 세계에서 유형의 세계로 나가는 서사가 천지창조 신화의 핵심이다. 입사식 구조는 천지창조를 되풀이하는 신적 존재가 그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고 발휘하는 과정이 제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천지창조 구조보다 확장된 제의의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시 제의는 행위적 신화이고, 원시무용은 율동적 신화이며 원시 암각화는 그림으로 표현된 신화이다. 신화가 말로 새겨진 신성한 이야기이듯, 암각화는 대부분 그림으로 새겨진 신성한 이야기가 담겨있다.<sup>18)</sup>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삶의 원초인 문제는 성(性)과 식(食)이다. 성식은 가장 강한 본능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된다. 종교적 문제 또한 인간 욕망의 투사라고 볼 때 성식의 문제 역시 종교를 통해 해결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원시적 신화가 그렇듯, 반구대 암각화 역시 성식의 문제에 관한 종교적 상관물로서 하나의 신화예술에 속한다.<sup>19)</sup>고 볼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인물상 역시 선민 사상에 기초한 절대적인 지도자에 대한 숭배의식의 표현<sup>20)</sup>, 수렵민이 믿고 있는 산신과의 관련성<sup>21)</sup> 등으로 연구

18) 나경수, 「반구대암각화의 신화학적 해석」, 『한국암각화연구』 Vol.16, 한국암각화학회, 2012. 3쪽

19) 나경수, 위의 글, 3쪽.

가 귀결되고 있어 이같은 점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더불어 반구대 암각화는  
주술·의례적 성격도 강하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면서 자연과 우주에 경외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 대응책으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신앙의례 즉 자연숭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애니미즘적 신격화  
가 특정한 동물에 투여되었는데 호랑이, 곰, 거북이 등이 그것이다.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 거북은 이같은 신앙화된 동물이다.  
또한 신석기시대 수렵 어로생활을 하던 선사인들이 조상신으로 숭배하던 자  
신들의 수호신에 대한 종교의례를 행하였고 그것이 신적 숭배의 암각화였음  
을 암시해준다.

반구대 암각화는 수렵 어로사회의 주민들이 생업의례 차원에서 조각한 것  
으로 판단된다. 반구대 암각화가 고래어장인 울산만 방어진과 연결된 태화강  
상류에 있는 점과 암각 기법이 뛰어나다는 점은 수렵 어로 기술이 뛰어난  
세력이 이주해 왔거나, 그 세력이 풍어 시기에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계절  
적 주술의례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위그림에 등장하는 동물들 또한  
식용수(食用獸)로 이해도 가능하지만 종교적 혹은 의례적 측면에서 보는 것  
이 타당하다.<sup>22)</sup>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실용화 방안에 쓰일 대표적 반구대 암각화 형  
상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 1) 인물상에 나타난 신화성

---

20) 고재룡,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31~42쪽.

21) 임장혁, 앞의 글, 183~184쪽.

22) 나경수, 앞의 글, 16쪽.



<그림5> 성기를 내밀고 춤추는 남자와 사냥하는 남자(울산 암각화 박물관)

반구대 암각화의 인물상은 거의 제의에 참여하는 사냥꾼이나 샤먼의 모습이다.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의 위쪽에 팔과 다리를 구부리고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 남자의 형상<그림6>은 주술사로 보이며 선사 시대인들은 주술적 힘으로 동물의 영혼을 통제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 주술사는 옆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북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상징성인 생산력을 빌어 풍요로움을 비는 의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래에 고래들이 따라 올라오는 형상을 통해서 보면 고래잡이의 풍요를 빌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암각화의 주술의례는 동물들의 영적 존재를 통제하여 수렵 어로활동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수렵의 풍요와 안전한 사냥 활동을 기원하는 주술적 수렵 어로의례의 표현행위였다.<sup>23)</sup>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소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인간 형상들은 대부분 성기를 내밀고 있는데 이것은 남근의 상징성, 즉 풍요를 나타내는 성기 숭배라고 볼 수 있다. 긴 나팔을 부는 사람<그림3, I-1>도 있는데, 이러한 인물상들은 자연력에 간절히 기원하는 주술사가 주술

23) 김숙희, 『울산 반구대그림의 신화적 상징:인물상, 동물상, 도구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4쪽.

적인 춤을 추고 있는 광경 또는 의식 춤을 추는 모습으로 보인다.<sup>24)</sup>

## 2) 동물상에 나타난 신화성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나 거북 같은 바다 동물이 많다. 고래 그림 중 맨 위의 첫<그림2>는 가장 커서 아래 고래들을 이끌고 가는 송배의 대상임을 알 수 있고 몸통에 작은 물고기 형태로 보아 새끼를 뱀 형태로 이는 다획이나 번식을 상징한다. 등에 창이 꽂혀 있는 고래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암각화의 여러 동물상 중 고래그림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선사 시대인들의 심미적 예술혼과 고래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거북은 신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거북은 오랜 옛날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서 구지가 설화에서부터 임금의 옥새에 이르기까지 거북이는 제의와 점김의 대상이었고 예지의 신성한 존재였다. 거북은 양서류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고래 또한 바다에 사는 동물이면서도 새끼를 낳은 포유류에 속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바다와 육지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연결짓는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며,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오가며 양쪽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샤먼의 존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sup>25)</sup>고 여겨진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의 거북그림은 샤먼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동안 그의 신성성을 증대시키는 동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반구대 암각화의 중앙과 오른쪽에 육지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뿔이 없는 암사슴이나 멧돼지, 호랑이, 표범 등이 있는데 대부분 아랫배가 불룩하여 새끼를 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24) 김숙희, 위의 글, 60쪽.

25) 김숙희, 앞의 글, 35쪽.

### 3) 배그림에 나타난 신화성

반구대 암각화에는 4척의 고래잡이 배가 보이고 그 배에 7~8명, 11명, 20여명이 타고 있다. 배그림은 반구대 암각화 중에서 고래사냥이나 물고기 이외에 선사시대 항해술 및 조선술의 발달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배그림은 고래잡이 배, 제의를 거행하는 배, 영혼을 싣고 하늘로 가는 샤머니즘적 상징물 등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 그림은 바다에서 풍어제를 올리는 배 또는 수확의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기운을 싣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6)</sup> 특히 수렵어로 사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샤먼이다. 샤먼의 도움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수도 없으며 사냥의 성공을 예언할 수도 없다. 샤먼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보조령과 접촉하는데 반구대 그림에 서는 거북이, 호랑이, 배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나머지 배그림도 제의를 행할 때 샤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지상세계에서 천상 또는 지하세계로 가도록 도와주는 보조령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배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 위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 때 물의 역할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로 되고, 이들은 의식이나 주술배로서 고래잡이의 풍요를 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배로 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구대 암각화의 형상에 따른 상징성들을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겠다.

---

26) 김숙희, 앞의 글, 49쪽.

27) 김숙희, 앞의 글, 51쪽.

<표 1> 반구대 암각화의 형상과 상징성

형상(암각화)	주제(신성한 이야기)
인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의에 참여하는 사냥꾼</li> <li>- 주술적 수렵 어로의례의 담당자인 샤먼</li> <li>- 풍요를 나타내는 성기 숭배</li> </ul>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획이나 번식, 생산의 풍요</li> <li>- 해당 동물(고래)에 대한 영원한 갈망</li> <li>- 거북은 샤먼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성성</li> </ul>
배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래잡이 배</li> <li>- 제의를 거행하는 배</li> <li>- 영혼을 싣고 하늘로 가는 샤머니즘적 상징물</li> </ul>
자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와 회생 및 재생 = 물</li> <li>- 불변성 항구성 = 돌과 바위</li> <li>- 애니미즘적 신격화</li> </ul>

## IV.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 1.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현황

살펴본 것처럼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민족의 기원과 생활 양식 등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로 인해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생활 문화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반구대 암각화만이 갖는 독특한 조형성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가 갖는 신화적·제의적인 것들을 단순히 종교 활동이나 주술적 기

능으로 치부하고 암각화의 조형미만을 강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형미만을 강조하여 생활 문화콘텐츠를 디자인하면 원형-그것이 인류 공통의 정신구조(archetype)이든지, 문화유산으로서의 외형적 모습(originality)이든지-은 소멸되고 상업적 지향만 남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포토샵을 활용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소재로 일상에 사용되는 소품 디자인들로 재창조된 것들이다. 주로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과 기법, 조형적 특성들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새겨진 인물, 동물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손수건, 넥타이 등 생활 용품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6> 고래 형상을 응용한 차 도구 (이혜령, 2013)

<그림6>의 작품 이름은 ‘고래의 꿈’이다. 생활 도자기가 갖는 심미성과 고급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고래 조각의 조형미에 대한 과도함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들이 떼지어 도약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고래의 꿈’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림7> 동물 형상을 응용한 넥타이(박남희, 2013)와 USB(울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2017)

<그림9>는 새끼 업은 고래와 거북의 행렬을 구성의 중심으로 하여 넓은 바다 공간을 자유롭게 부유하는 고래의 운동감과 광활한 바다의 공간감을 디자인하였고,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와 멧돼지, 우제목과 동물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도시적 미를 강조한 넥타이로 재창조한 것이다.



<그림8> 반구대 남성, 여성 형상과 용용 디자인 손수건(반구대포럼, 2009)

<그림8>은 반구대 암각화의 남성과 여성 형상을 커플로 묶어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에 배치하고 원 속에 고래를 일렬로 배치하여 디자인한 손수건이다.



〈그림9〉 고래와 거북의 행렬을 응용한 테이블 장식보와 회화 이미지(반구대포럼, 2015)

〈그림9〉는 새끼를 업은 고래를 부각시키고 고래와 거북의 도식화된 행렬을 회화적 이미지로 합성하여 만든 테이블 장식보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들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현대적 재창조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반구대 암각화의 본질적 요소인 신화적 가치 또는 예술성들이 배제된 채 ‘실용화’되고 있어 그 원형들이 부지불식간에 훼손 되는 측면이 있다.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원형들은 ‘현대적 실용화’로 재창조되었지만 그 원형들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디자인들이 도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왜’, ‘어떤 것’이 현대화·도시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유인하는지에 강한 의문들이 수밖에는 없다.

## 2. 반구대 암각화의 현대적 활용

### 1) 디자인 활용

따라서 본고는 앞서 살펴본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적 예술성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 형상

들을 중심으로 직접 디자인한 몇 가지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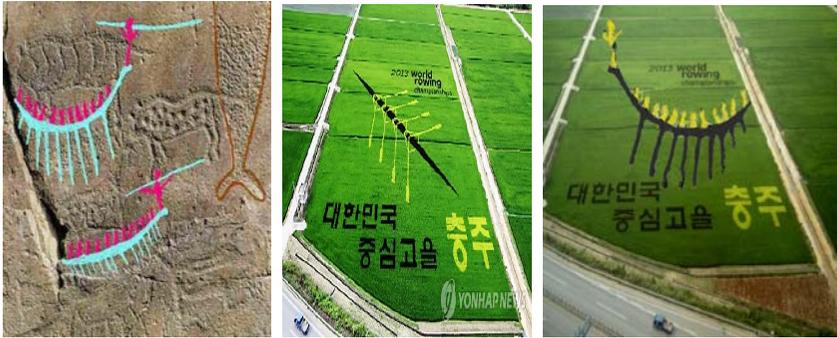
〈그림10〉 반구대 암각화의 활 쏘는 인물 형상을 응용한 국가대표팀 유니폼

〈그림10〉은 반구대 암각화의 활을 쏘며 사냥하는 인물의 형상을 양궁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각인시켜 디자인한 것이다. 동료들의 사냥을 활을 쏘며 당당하게 지휘하는 인물상이 주는 샤먼적 요소와 국위를 떨치고자 결의에 찬 양궁 국가대표의 모습에 기능적 일치를 의도한 것이다.



〈그림11〉 반구대 암각화의 주술사 형상을 응용한 범씨 논그림

<그림11>은 반구대 암각화의 주술사 형상을 응용하여 눈에 걸리 뱀씨를 심는 모습을 디자인해 보았다. 반구대 바위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상은 거의 제의에 참여하는 사냥꾼이나 사면의 모습이다. 다리를 구부리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대는 등 춤추는 형상이며, 긴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춤은 사냥 주술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춤추는 의미는 풍요를 바라는 것이므로 풍년을 바라는 들녘 눈에 걸리 뱀씨로 디자인 하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림12> 반구대 암각화 배그림 형상을 응용한 세계조정대회 홍보 뱀씨 논그림

<그림12> 역시 반구대 암각화의 배그림 형상을 응용하여 ‘2013 세계조정 대회’ 홍보용 뱀씨 논그림을 디자인한 것이다.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효율성 증대는 리더를 정점으로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조직문화는, 조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의식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에 적합한 반구대 암각화의 배그림 형상을 ‘세계 조정대회’ 홍보용 뱀씨로 각인시켰다.



〈그림13〉 반구대 암각화 거북 형상을 응용한 수저 세트

〈그림13〉은 반구대 암각화의 대표적 영물 중 하나인 거북 형상을 응용하여 생활 문화콘텐츠로 제작해 본 것이다. 거북을 소재로 한 기왕의 생활 문화콘텐츠가 있지만 국가대표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반구대 암각화의 거북 형상을 원형 그대로 각인시키는 것이 문화유산의 실용화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림14〉 반구대 암각화 전체형상을 응용한 텀블러

〈그림14〉는 반구대 암각화의 전체 형상을 텀블러에 넣어 생활 문화콘텐츠로 제작한 것이다. 텀블러는 일상 생활에 필수적 아이템이어서 ‘헬로키티’나 ‘스타벅스’ 같은 대중성 높은 브랜드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상품

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신화 예술적 요소뿐 아니라 심미적 예술성까지도 겸비한 반구대 암각화의 전체 형상을 디자인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암각화의 전체 형상을 대표적 생활 아이템인 텀블러에 각인시켜 보았다.

## 2) 스토리텔링을 통한 극예술 활용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주체와 제작 과정 등을 각색하여 하나의 연희극으로 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무용은 고대인들의 삶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활동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무용은 고대인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이들의 개인적·집단적 활동 전체에 편재하여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한 이들 집단의 가장 유의미한 활동이었다.<sup>28)</sup> 이처럼 예술은 노동과 종족의 체도를 통해 인간이 동물적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인간이 스스로를 인간으로 느끼고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와 기능을 정신화시켰으며, 무한히 힘겹고 거의 짐승에 가까운 고난스런 그의 현존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원시시대 예술이 발생할 당시에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연자와 관객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당시 모든 예술적 활동이 미적 관객들을 위한 공연물이 아니라 집단의 자기활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회복시키는 연희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술의 기원에 걸맞은 현대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시 예술의 기원을 ‘유희기원설’, ‘노동기원설’, ‘주술기원설’ 등 세 가지로 설정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연희극화’ 또한 이와 동일하게 무대를 구성해볼 수 있겠다.

먼저 유희(遊戱) 기원설은 구석기인이 남아도는 육체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에너지방출의 과정에서 원시 예술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토

28) 김말복, 『무용예술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2003, 15쪽.

대로 한다면, 원시시대 사람들이 반구대 암벽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전사의 성인식을 치루는 의례나 부족의 축제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극을 꾸밀 수 있다. 유희기원설에 바탕을 둔 반구대암각화의 조각 과정을 무용수 전체의 집단무(集團舞)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이를 극의 서두에 배치하여 농악이나 사물놀이 등으로 무대 위나 관객들의 집단적 유희의 수위를 높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勞動) 기원설은 예술이 노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수렵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수렵무나 전쟁무, 노동의 수고를 덜기 위한 노동요(勞動謠)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사냥을 하다가 죽은 부족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주술사로 분장한 무용수가 무대 사이드에서 살풀이춤의 기원과 춤동작을 부족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살풀이춤의 동작과 의미를 한 동작씩 관객에게 설명하고, 그와 동시에 무대 중앙에 다른 무용수가 나와서 주술사가 설명하는 춤 동작 하나하나를 늦은 동작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살풀이춤 동작의 의미를 일정 이해하게 되고 이후 살풀이춤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무대와 관객의 분리를 상쇄시킬 수 있다.

지막으로 주술(呪術) 기원설은 ‘가상’을 통해 ‘현실’의 소망을 이루려는 주술적 신앙에서 원시예술의 기원을 찾는 것이다. 원시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냥의 성공에 주술(呪術)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수렵에 필요한 모든 지식, 모든 정신적, 신체적 준비와 훈련이 바로 이 주술이라는 예술 형태 속에 집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가 뛰어난 사실성을 보여 주는 것도 당시 원시인들이 갈망했던 사냥의 성공에 대한 절실함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사냥꾼으로 분장한 한 무리의 춤꾼과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동물 역을 하는 한 무리의 춤꾼이 등장하여 사냥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격렬한 춤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다. 부족 대표인 주술사가 나와서 반구대 암각화의 형상대로 주술의 예식을 치루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때 주술사를 중심으로 액백

이곳을 보여준다. 이때도 주술사가 액막이굿의 동작과 의미를 부족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관객에게 설명하고 다른 부족원 무용수들이 그 뒤에서 낮은 동작으로 액막이굿을 천천히 보여준다.

#### IV. 결론

문화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도, 미래도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콘텐츠’화 시키는 ‘문화콘텐츠’ 또는 ‘문화산업’은 향후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향도할 핵심 분야이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화전통과 생활양식 등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은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그를 위한 대중화·생활화 방안이 여러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활용화 콘텐츠들을 제시해보았다.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가 생활문화콘텐츠로 활용화 방안들이 적지 않은 성과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 신화적 예술성보다 조형적 예술성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정체성은 그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문화전통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반구대 암각화라는 세계 유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화는 이같은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그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세계인들의 문화에는 공통의 정신 구조 즉 문화원형이 있고, 그 문화원형은 신화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반구대 암각화 또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활용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암각화가 최근 10만 원 권 화폐의 보조도안 소재로 채택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반구대 암각화가 전문가의 손 안에서 벗어나 대중적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울산시나 울산문화재단 등이 앞장서서 반구대 암각

화의 다양한 콘텐츠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안들 외에, 반구대 암각화를 특화한 상품에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나 암각화 모형 제작 등도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대중성 있는 생활문화콘텐츠 등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그로부터 반구대 암각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말복, 『무용예술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2003.  
김열규, 『한국문학사-그 형상과 해석』, 탐구당, 1983.  
박정근외, 『돌의 미를 찾아서』, 2000.  
임세권, 『한국의 암각화』, 대원사, 2000.  
정동찬, 『살아있는 신화 바위그림』, 해안, 1988.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1996.  
황세권·문명대, 『반구대』, 동국대학교, 1984.  
황수영·문명대, 『반구대(울주 암벽조각)』, 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전호태, 『울산의 암각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3.

### <학위 및 학술논문>

- 고재룡,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성혜, 「경남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형태에 나타난 조형형식에 관한 小考」,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숙희, 「울산 반구대그림의 신화적 상징:인물상, 동물상, 도구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김원룡,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집, 한국고고학연구회, 1980.  
나경수, 「반구대 암각화의 신화학적 해석 가능성」, 『한국암각화연구』Vol.16, 한국암각화학회, 2012.  
박남희,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과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일상적 활용모델 연구」, 『미술교육논총』23권 제1호, 2009.  
박소라,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파크형박물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환경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선정규, 「중일 양국의 문화전통 비교」, 『세계의 문화전통과 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학회 50차 세미나, 2014

임장혁, 「대곡리 암벽조각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회』24집, 1991.

<보고서>

김호석, 「공예란 무엇인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3.

장석호, 「천전리각석 실측조사보고서」, 울산광역시, 2003.

이혜령, 「반구대 암각화를 응용한 차도구 디자인 연구」, 『이혜령 도예전』, 2013.

<참고 사이트>

<http://ko.wikipedia.org>

Abstract

**Archetypal value and Modern utiliz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ythic value in the Bangudae Petroglyphs

Lee, Sang-woo

Efforts to properly preserve and pass on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ursued in various directions in order to create public consensus and to popularize and make a living. There is a common spiritual structure or The Cultural Archetypes in the culture of the world, and The Cultural Archetypes is closely related to the mythical element. In this respect, our cultural heritage, the Bangudae Petroglyphs, is like a mirror containing the life of our ancestors. Furthermore, since the paintings of the the Bangudae Petroglyphs have diverse symbolic meanings, its modern recreation is possible in many ways.

Nonetheless, there are aspects in which the Archetypes are undermined by the "practicalization" of the mythical values,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the Bangudae petroglyphs. Although the cultural prototypes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ere recreated as 'modern practical use', we are not sure what 'why' and 'what' are being modernized or urbanized, and what we are living in today, There is a strong question.

Therefore based on the mythological artistry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e have presented several practical method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forms of the cultural tradition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hen the identity of a nation originates from the cultural tradition that has been passed down to that nation, The modern utilization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orld's only cultural heritage will be able to achieve its true fruits if it is focused on succeeding and spreading this cultural tradition.

**key words** : The Age of Culture, Artistic value of cultural heritage, Archetypal value of the Bangudae Petroglyphs, Modern utilization of the Bangudae Petroglyphs